

# 愚伏 鄭經世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우 인 수\*

## 차례

- I. 머리말
- II. 학맥과 학계 위상
- III. 사환과 현실 대응
  - 1. 관직생활과 시무책의 제시
  - 2. 전례에 대한 예론의 제시
- IV. 외침에 대한 대응
  - 1. 임진왜란시 의병 활동
  - 2. 정묘호란시 號召使 활동
- V. 맺음말

### 【국문초록】

우복 정경세는 17세기 조선조 영남 남인 출신의 뛰어난 학자적 관료였다. 그는 퇴계의 수제자인 서애 류성룡에게 수학한 후 출중한 학문적 능력으로 퇴계 재전의 제자 중 선두의 위치를 점하여 일세를 풍미하였다. 특히 정경세는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 이후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관료로 정계에 진출하여 커다란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었다. 그다지 많지 않는 퇴계학과 문과 출신 고위 관료의 처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부각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정경세의 정치 사회적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이라는 하나의 인식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관료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직생활에 임하였는데, 당쟁기를 살아간 당인이었기 때문에 당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의 정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치적 행로와 사환도 당쟁의 추이에 따라 부침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류성룡을 비롯한 남인이 북인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함께 실각하였다. 오랜 정체와 침체의 시간을 거쳐 인조대에 그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뛰어난 학문적 실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군주를 계육하는 데 정성을 다한 관료였다. 남이 하기 어려운 말을 하여 삭탈 관작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도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부분이다. 수차에 걸쳐 시무책을 아뢰는 바 있었으며, 궁중의 사사로운 재산 증식에 제동을 거는 발언도 수차례 올린 바 있었다. 예학에도 일가견을 가져 당시 원종 추송을 둘러싸고 10년간 수차에 걸쳐 전개된 일련의 전례 논쟁에서 올바른 예의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편 그는 그의 생애에 큰 국난을 두 차례나 겪었다. 30세에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는 의병을 일으켜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면서 치열하게 대응한 바 있었다. 그 후에는 조정에 복귀하여 임난의 극복에 힘을 보태었으며, 임난의 막바지에는 경상도관찰사로서 마무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65세의 나이에 맞이한 정묘호란 때는 영남호소사에 임명되어 군량과 의병을 모우는 책임자로 활약한 바 있었다.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조정이 믿고 영남 한 지역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위상과 신망을 가진 존재였음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정경세는 이황의 적통을 류성룡을 통해 이어받은 학자적 관료로서 영남 남인의 지도자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높은 학문적 자질을 바탕으로 군주의 계육에 힘쓴 관료였으며, 예학에 밝아 국가적 전례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한 예학자였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서는 자신의 한 몸을 던진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 이로써 그는 영남을 대표하는 위상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영남과 남인에 국한되지 않는 명성과 신망을 얻은 존재였다.

#### 주제어

정경세, 퇴계학파, 영남, 상주, 남인, 영남 남인

## I. 머리말

우복 정경세[1563(명종 18)~1633(인조 11)]는 17세기 조선조 영남 남인 출신의 뛰어난 학자적 관료였다. 그는 퇴계의 수제자인 서애 류성룡에게 수학한 후 출중한 학문적 능력으로 퇴계 재전의 제자 중 선두의 위치를 점하여 일세를 풍미하였다. 그의 현실에 대응하는 모습은 스승인 서애를 많이 닮았다. 젊은 시절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료생활을 시작한 것이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학식과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의 고위직을 역임한 것이 그러하였다.

특히 정경세는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 이후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관료로 정계에 진출하여 커다란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었다. 이조판서로서 양관 대제학을 겸한 사실이 그를 증명해준다. 이조판서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 할 수 있고,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은 국가의 학문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 둘을 서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차지하였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다지 많지 않는 퇴계학파 문과 출신 고위 관료의 처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부각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정경세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간간히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77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정경세 문집을 축소 영인본으로 간행하면서 분야별로 정경세를 조망한 5편의 해제를 앞머리에 실은 것이 그것이다. 이우성이 總敍, 유정동이 유학, 정재각이 정치, 최진원이 문학, 이지형이 생애를 각각 맡아 고찰한 바 있다.<sup>1)</sup> 이후 이 5편의 논고에다가 4편의 새로운 논문을 더 보태어 한 권의 연구서를 간행한 바 있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우복집』, 1977.

는데, 윤사순의 성리학, 유권종의 예학사상, 김시업의 우산동천과 자아, 이장희의 임난활동에 관한 논고들이 보태어졌다.<sup>2)</sup> 이로써 정경세에 대한 분야별 기본적인 이해는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 다보니 정경세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된 면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정치사적 측면에서 그의 활동 전모를 살피고 위상을 정립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정경세에 대한 부분적인 조망이 더해지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예학과 예론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사회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논급한 논고,<sup>3)</sup> 인조대에 일어난 예론 논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정경세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다룬 논고,<sup>4)</sup> 정경세를 위시한 상주지역의 퇴계학맥을 다룬 논고,<sup>5)</sup> 서원 배향시의 위차 문제를 둘러싼 퇴계학과 내의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다룬 논고<sup>6)</sup> 등이 그것이다. 위의 연구들에 의해 정경세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경세의 부분적인 모습과 지식에 만족하여야 하였고, 종합적인 파악과 이해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위의 성과들을 참고한 위에 정경세의 정치사

2)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 『우복정경세선생연구』, 태학사, 1996. 그 중 유권종은 여기에 실린 글을 약간 다듬어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우복 정경세의 예학사상」, 『안병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아세아문화사, 1998.

3) 고영진,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 - 정경세·김응조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8, 1992.

4) 서인환, 「인조초 복제논의에 대한 소고」, 『북악사론』1, 1989.  
이영춘, 「잠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승」, 『청계사학』7, 1990.

5) 최재목, 「우복 정경세와 상주지역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28, 2000.

6)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 - 여강서원 치폐전말 -」, 『퇴계학과 한국문화』45, 2009.

회적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이라는 하나의 인식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 대응한 그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퇴계학맥의 계승 사실과 남인 학계 내에서의 위상을 살피고, 3장에서는 관직 생활을 하면서 올린 상소문이나 상계에서 드러나는 그의 시무책을 분석하여 그의 현실 인식을 살피고, 국가 전례 문제에 대응한 그의 모습을 살펴 현실에 대응한 그의 인식과 자세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외침에 대한 그의 대응을 왜란과 호란에 임하여 보여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살피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의 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정경세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의식과 자세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II. 학맥과 학계 위상

정경세는 18세 때 상주목사로 부임한 류성룡에게 나아가 사제의 관계를 맺었다. 류성룡은 퇴계 이황의 高弟 중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정경세는 이황의 재전제자에 해당되었다. 그는 스승과 비슷한 관료형 사림으로서의 길을 걸었다. 24세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간 후 스승인 류성룡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면서 사제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정경세와 류성룡의 인연은 대를 이어 지속되면서 더욱 각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선 류성룡의 제 3자인 류진(1582-1636)의 경우 상주로 거주지를 옮겼을 뿐 아니라 정경세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다. 나중에 정경세의 손자 정도응이 류진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음으로써 이 두 집안은 서로 학문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두 집안은

자연스럽게 혼인을 주고받는 관계로까지 발전하면서 그 인연은 더욱 깊어졌는데, 바로 정도응이 류진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연에서 출발하여 혈연이 더해져서 류씨와 정씨 두 집안은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sup>7)</sup>

이렇게 하여 李滉 - 柳成龍 - 鄭經世 - 柳軫 - 鄭道應으로 이어지는 퇴계학맥의 확고하고도 선명한 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정경세 당대에도 그는 이미 류성룡의 수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정도로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학문과 관직 두 측면에서 모두 뛰어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류성룡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영남지역의 퇴계의 직전제자들이 거의 사거하고 재전의 제자들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었을 무렵 정경세는 영향력 있는 인물의 선두적인 위치에 서있었다. 향론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가 훗날 屏虎是非라고 불린 사안에 대한 그의 의견 개진이었다.

병호시비가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 정경세의 의견은 유림의 공론을 결정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퇴계 이황을 모시는 廬江書院에 류성룡과 김성일을 함께 배향하는 문제로 질문을 한 안동지역 유생들에 대해 답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sup>8)</sup>

- 퇴계와 함께 모시더라도 서애와 학봉에 대해 선생이라 칭할 수 있다.
- 좌차는 문묘규식에 의거해서 하면 되는데, 동벽에 두 분을 같이 모셔도 되고 동·서벽으로 나누어 모시는 것도 온당하다.

7) 두 집안의 인연의 사례는 그 뒤에도 더 나타났다. 정도응의 고손으로서 학통을 계승한 입재 정종로가 류진의 후손인 강고 류심춘에게 학맥을 전하였던 것이다. 류심춘의 학문은 그의 아들 계당 류주목으로 이어졌다.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대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25, 2003, 122쪽 ;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퇴계학과 한국문화』44, 2009, 13쪽.

8) 『우복집』13, 문목에 답한 편지 ; 『국역우복집』2, 339-340쪽.

- 좌차의 선후는 두 선생이 평소에 서로 대하는 것이 어떠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나이는 서로 간에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나, 작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 축문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마련해도 무방하다.

위의 내용 중에서 제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세 번째인 좌차의 선후 문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로 이것 때문에 병호시비가 후대에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좌차의 선후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나이와 관직이었다. 김성일이 류성룡보다 4세 연장이었으나, 관직은 류성룡이 영의정으로 최고의 관직을 역임한 반면 김성일은 경상도관찰사에 머물렀다. 이에 정경세는 4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큰 변수가 아닌 것으로 여긴 반면 관직의 차이에는 큰 비중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관직이 높은 류성룡이 당연히 앞자리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의 판단에 따라 시비는 판가를 났고, 여기에 대해 누구도 공개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그의 판단과 말은 무게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당시 정경세가 영남 남인 사이에서 가진 권위와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599년 잠시 고향인 상주에 머물고 있을 때는 존애원이라는 사설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데 상주 지역 사족들을 설득하고 규합하는 일에 앞장선 바 있었다.<sup>9)</sup> 그리고 정묘호란시에는 경상도호소사에 임명되어 난국 수습의 막중한 임무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도 그가 평상시 영남지역에서 가진 권위와 명망에서 비롯된 것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sup>10)</sup>

9) 존애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라.

한기문,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 설치의 배경과 의의」, 『상주문화연구』10, 2000.

우인수,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 기능」, 『대구사학』104, 2011.

10)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4장 2절에서 상론할 것이다.

정경세는 당색으로 볼 때 남인임이 분명하지만 교유의 범위는 남인 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남인 정경세에 있어 서인의 존재란 어떠하였을까? 그 자신 서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화를 당한 경험도 없으며, 오히려 선조말 광해군대에는 함께 북인으로부터 핍박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인이 주도한 반정에 의해 성립한 인조정권에 남인으로서 등용된 인연이 있었다. 무엇보다 당쟁이 치열한 단계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그 자신 당파의식이 큰 인물이 아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서인의 핵심 가문인 은진 송씨 宋爾昌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어 혼치 않은 인척 관계를 맺는 데로까지 이어졌다.<sup>11)</sup> 정경세는 18세의 청년 송준길을 사위로 맞이하였다. 송준길은 아버지 송이창이 젊어서 이이의 문하에서 수학한 인연과 어머니 김씨가 김장생의 종매인 관계로 인해 일찍이 김장생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은 출중한 청년이었다. 정경세가 중앙정계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바탕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서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사계 김장생과의 학문적 공감대 형성과 교류도 큰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정경세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신의 사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송아무개라는 사위를 두었는데 그 사람이 매우 어질다. 반드시 장차 크게 성취할 것이다.”라고 자랑하며 기대하였다고 한다.<sup>12)</sup>

정경세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의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사위인 송준길에게 부탁하였다.<sup>13)</sup> 喪葬과 관계된 일

11) 송준길의 영남 남인과의 접촉과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라. 우인 수, 「동춘당 송준길의 영남인과의 접촉과 그 추이」, 『충청학연구』6, 2005.

12) 『현종개수실록』26, 13년 12월 5일 병오.

13) 『국역동춘당집』17, 우복 정선생께 올리는 제문, 6쪽.

뿐만 아니라 문집의 편찬, 어린 손자의 장래에 대한 책무까지도 부탁하였던 것이다. 이에 송준길은 그의 나이 28세에 주어진 위의 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였다. 그는 장인의 행장을 지었고,<sup>14)</sup> 연보와 문집 편찬에 관여하였으며,<sup>15)</sup> 諡狀과 諡號를 받는 일도 앞장서서 주선하였다.<sup>16)</sup> 그는 시장은 송시열에게 부탁하였으며,<sup>17)</sup> 시호가 내린 뒤에는 그 전달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주선하기도 하였다.<sup>18)</sup>

### Ⅲ. 사환과 현실 대응

#### 1. 관직생활과 시무책의 제시

정경세는 관료였다. 선조 19년 24세에 承文院 權知副正字로 시작하여 인조 10년 70세에 증병으로 관직을 사양하면서 오랜 관직생활을 마감하였다. 물론 이 기간에 계속 관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중간에 관직을 떠나있던 시기도 꽤 되었다.

그는 관료로서 세상에 나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대해 상

14) 『동춘당연보』, 효종 7년(51세) 8월조.

15) 『국역동춘당집』14, 정봉휘 도응에게 줌(계유, 인조 11년), 정봉휘에게 답함(정축, 인조 15년), 정봉휘에게 줌(갑신, 인조 22년), 정봉휘에게 줌(을유, 인조 23년). 『국역동춘당집』12, 정경식에게 답함(병신, 효종 7년).

16) 『국역동춘당집』14, 정봉휘에게 줌(정유, 효종 8년), 정봉휘에게 줌(무술, 효종 9년), 정봉휘에게 줌(을사, 현종 6년).

17) 『국역동춘당집』14, 정봉휘에게 줌(정유, 효종 8년), 정봉휘에게 줌(무술, 효종 9년).

18) 『국역동춘당집』14, 정봉휘에게 줌(을사, 현종 6년). 그들의 인연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송준길은 閔維重을 사위로 맞이하였고, 민유중은 딸을 숙종비(인현왕후)로 납비하였다. 이로써 정경세 집안은 서인·노론의 명문가인 송씨에 이어 민씨 집안과도 일정한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당한 자부심을 가졌고 또 의미를 부여한 듯하다. 이는 제갈량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한나라 황실을 증흥시키지 못한 것을 허물삼아 제갈량을 폄하하는 후대인들을 보면 잔인한 사람이거나 질투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대의를 밝히고 강상을 붙들어 세운 것을 높이 평가하여야지 승패를 가지고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지 않고 용중에서 늙어 죽었어야 했다고 하는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가볍게 나왔다는니, 한갓 목숨만 잃었다는니, 늙어서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니 하는 평가들도 잔인한 것으로 여겼다. 세상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정성을 다해 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출처관을 가졌던 것이다.<sup>19)</sup>

그는 세 명의 군주 선조·광해군·인조의 치세에 걸쳐 관직생활을 하였다. 바로 봉당이 나누어져 서로 대립 갈등한 당쟁기였다. 당인으로서의 정치적 부침을 그라고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사환은 선조대의 순조로운 출발과 굴절, 광해군대의 깊은 좌절, 인조대의 화려한 재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광해군대와 인조대는 집권 당파가 워낙 뚜렷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환은 역시 왕대별로 시기에 따라 살피는 것이 효율적이면서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선조대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 관계에 첫발을 디딘 시기로서 초급 관료로서의 관직생활을 한 시기였다. 스승인 류성룡의 기대와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순탄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어 선조 22년 기축 옥사가 일어났을 때 이 옥사에 연루된 이진길을 그 전에 사관으로 추천한 사실로 인해 홍문관 저작에서 파직된 바 있었다.<sup>20)</sup> 그러나 이 일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 복귀하였다.

19) 『우복집』13, 書, 輿庠中居接士子.

20) 『선조수정실록』23, 22년 11월 1일 을사.

임진왜란 중이던 선조 27년에는 홍문관 수찬으로 세자시강원 문학을 겸하였다.<sup>21)</sup> 이 시기 그가 주로 홍문관의 주요 직책에 주로 임명된 것은 그의 학문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사관이 그의 학문을 '영남유림 중에 으뜸이었다.'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연령대 영남 지역 인재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바 있었다.<sup>22)</sup> 임진왜란 막바지이던 선조 30년에는 동부승지에 임명되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sup>23)</sup> 이듬해인 선조 31년에는 경상도관찰사에 특별히 임명되어 임진왜란 막바지 수습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그해 말 복인의 공격으로 류성룡이 파직될 때 그의 '爪牙·鷹犬'으로 간주되어 金晬·許箴·崔璫·金順命·趙正立·李好閔·尹國馨 등과 함께 체직되었다.<sup>24)</sup> 점차 조정은 복인으로 채워졌다. 그는 지방관인 영해부사를 수개월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수년간 고향인 상주에 우거하였다. 선조 35년에 이르러 예조참의에 임명되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영남 남인의 중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몇몇 중견관료를 정경세의 복심이라고 복인들이 몰아붙이는 것에서 정경세의 존재감을 상당히 무겁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인의 중심인물로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대상이 된 그는 드디어 사헌부에 포진한 복인들로부터 탄핵을 받기 시작하였다. 대사헌 정인홍이 직접 나설만큼 복인은 다급하게 서둘러 그를 파직시켰다.<sup>25)</sup> 그 때 복인들이 내세운 탄핵의 이유도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뿐더러 그 탄핵 과정에서 보인 대사헌 정인홍의 규례를 무시한 행동은 사헌부 내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sup>26)</sup>

21) 『선조수정실록』28, 27년 12월 1일 갑진.

22) 위와 같음.

23) 『선조실록』95, 30년 12월 23일 기묘.

24) 『선조수정실록』32, 31년 11월 1일 임오.

25) 『선조실록』149, 35년 4월 16일 정미, 17일 무신.

26) 『선조실록』149, 35년 4월 16일 정미. 이 때 정경세의 탄핵 사유는 예를 중시하

결국 선조대 후반 정경세는 영남 남인의 중심적 인물로 부상하면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당인 북인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같은 영남의 북인인 정인홍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면서 남인의 중심인물로 자리를 굳혀간 시기였다고 하겠다. 다만 관직생활은 당쟁의 부침에 따라 북인인 등장하는 선조말년부터 순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광해군대는 주지하듯이 소북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대북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로서 남인으로서의 시련의 시기였다. 정경세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더하여 광해군 즉위년의 구언에 의해 올린 시무 상소로 인해 광해군의 진노를 사면서 시련을 겪게 되었다.<sup>27)</sup> 그는 이 상소에서 성학에 힘써서 백성들의 표준을 세우고, 인재 취사를 공정하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절약과 검소를 통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는 3가지를 국정의 요체로 제시하였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표준을 세우고, 이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복종시키며, 아울러 그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국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갓 즉위한 군주가 앞으로 펼칠 국정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요체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주는 성학에 힘써야 하고, 인재의 취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며, 절약과 검소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당시 이조판서 鄭昌衍의 임용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광해군이 의정부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이

---

여야 하는 예조참의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당하였을 때 삼가지 않았다는 것과 복수군의 일로 관동에 나갔을 때 공공연히 기생을 끼고 놀았다는 것이었다. 후일 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경세는 經業에 종사하여 한때의 명류로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이제 사실에 가깝지도 않은 것으로 비방을 가했으니, 그 또한 심하다.”라고 변호하면서 북인의 무리함을 지적한 바 있다.(『선조수정실록』36, 35년 3월 1일 계해)

27) 『우복집』3, 應求言教疏. 『광해군일기(중초본)』4, 즉위년 5월 2일 정해.

조판서에 임명하기 위해 너무 노골적이고도 무리하게 加望을 지시하면서  
관여한 잘못을 드러내 말한 것이었다.<sup>28)</sup> 당시 조정의 관료들 중에 누구  
도 감히 거론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지방 수령인 정경세가 이를 용기있게  
지적하였고, 그 결과 삭직을 당하였다.<sup>29)</sup>

얼마 뒤 다시 서용되어 광해군 1년에는 동지사에 임명되어 명에 다녀  
왔다. 이 때 다량의 염초를 사오는 데 공을 세운 바 있어 일행 모두가  
조정으로부터 일정한 상을 받은 바 있었다.<sup>30)</sup> 이어 대사성에 임명되었으  
나 조정의 분위기를 꺼려서 외직을 청하여 나주목사로 나아갔다가 곧 이  
어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sup>31)</sup> 그 후 광해군 4년 金直哉의 역욕에 연  
루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았으나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  
었다. 하지만 중앙관보다는 지방관으로 보임해줄 것을 이조 관원에게 청  
한 편지가 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나 관작이 삭탈되는 처지가 되었다.<sup>32)</sup>  
이후 그는 광해군대 대북정권하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긴 은둔 생활에 들  
어가게 되었다. 이미 선조말년부터 북인들의 견제를 받아 조정에서의 운  
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 상태였는데, 광해군의 즉위와 더불어 북인들에게  
서 더욱 핍박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그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당시 남인 전체가 처한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정국이 급변하자 정경세는 남인  
의 대표적 관료로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였다. 반정이라는 비상한 방

28) 『광해군일기(중초본)』4, 즉위년 5월 7일 임진.

29) 『광해군일기(중초본)』4, 즉위년 5월 14일 기해 ; 『앞의 책』36, 2년 12월 22일  
계사. 정경세의 오랜 친구인 이준은 정경세의 여러 상소 중에서도 이 상소가 가  
장 탁월하고 우뚝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우복집별집』, 부록, 언행록 ; 『국역우  
복집』5, 139-140쪽)

30) 『광해군일기(중초본)』27, 2년 윤3월 25일 경오.

31) 『광해군일기(중초본)』36, 2년 12월 22일 계사.

32) 『광해군일기(중초본)』52, 4년 4월 2일 병인.

법으로 집권하였기 때문에 널리 민심을 끌어들이 필요하였다. 정경세는 바로 청요직인 홍문관 부제학으로 발탁되었다. 그 때 사신은 “정경세는 명민하고 재주가 있으며 또 經術에 능통하여 당세의 중망을 받았다. 광해 때 쫓겨나 집에 있다가 이에 이르러 맨 먼저 論思의 장관에 제수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적임자를 얻었다고 칭송하였다.”라고 사람들의 기대와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였다.<sup>33)</sup> 이후 거의 5·6년간 홍문관 부제학, 승정원 도승지, 사헌부 대사헌을 주로 역임하면서 인조초년 정국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인조 7년에는 이조판서에 양관대제학을 겸하여 한 나라의 銓衡과 文衡을 한 손에 쥐으로써 절정기를 맞이하였다.<sup>34)</sup>

그렇지만 서인의 세상에 출사한 남인들의 어려움과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였다. 인조대 남인의 원로로서 영의정까지 지냈던 이원익 같은 이도 일부 서인 연소배들로부터 심한 비아냥을 들어야했다. 翊衛司의 한 나이 젊은 관원인 이행진은 용렬한 늙은 관리를 책망할 때 반드시 ‘이원익과 같은 사람이네.’ 라고 하였으며, 윤운구 같은 무리는 언제나 이원익을 가리켜 ‘늙은 쥐’라고 지칭하였다고 한다.<sup>35)</sup> 정경세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인조에 의해 위 두 사람은 비록 폐출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당시 남인의 현실이었다.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직접적인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정권에 참여한 남인이 조정에서 비중을 키우기에는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다. 서인 으로서는 구색을 갖추는 정도에서 남인의 등용을 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남인의 진출을 허용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경세는 군주인 인조를 보좌하면서 자신과 남

33) 『인조실록』1, 1년 3월 16일 병오.

34) 『인조실록』21, 7년 9월 20일 신축 ; 『앞의 책』21, 7년 11월 19일 경자.

35) 『인조실록』20, 7년 3월 4일 경신.

인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반정 일등공신으로서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이귀에 대한 정경세의 대응에서 잘 드러난다. 이귀는 김류와 더불어 양대장 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정경세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남인 세력 전체를 견제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귀는 성정이 급하여 대단히 거친 언사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과열음이 상당히 컸다. 이에 남인을 대표하던 정경세로서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직접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조 초년 대사헌으로 있던 이귀는 부제학 정경세가 경연석상에서 한 말을 트집잡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전날 경연에서 정경세가 아뢰기를 “덕이 성한 사람에게는 관작을 높여야 하고, 공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을 많이 줘야 한다.[德懋懋官 功懋懋賞]”고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공신은 공신대로이고, 사론은 사론대로이다.[功臣自功臣 士論自士論]”라고 한 바 있었는데, 이를 이귀는 정경세가 공신들을 견제하려는 발언으로 지목하였다. 그런 한편 정경세가 그런 말을 한 의도는 남인들을 더 많이 등용시키기 위한 데 있음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덧붙임으로써 정경세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고 하였다.<sup>36)</sup>

이귀와 정경세의 정면 대립은 선조의 제 7자인 인성군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대립 전선을 형성한 바 있었다. 인조 2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인성군은 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대된 바 있었다. 이귀는 인성군의 죄를 다룸에 있어 부제학 정경세가 이끄는 홍문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서 간사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한 바 있었다. 사실 정경세는 인성군의 죄상이 완전히 드러나면 그 때 법률에 따

36) 『인조실록』2, 1년 7월 8일 병신.

라 처치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절차상의 합법성까지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다.<sup>37)</sup>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서인 내에서도 이귀의 무리함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았다.<sup>38)</sup> 이 건으로 정경세는 결국 부제학에서 사임하였다. 곧 대사헌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도승지에 임명되면서 인조의 신임은 유지하였다.

인조 4년에는 남인을 두둔한다는 명목으로 이귀로부터 노골적인 공격을 받은 바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장계를 올리면서 말미에 율문을 잘못 인용한 바 있는 경상감사 정온에 대한 처리를 두고서였다. 이귀는 조정을 경멸하였다는 죄목으로 정온을 나국하자는 입장이었고, 정경세는 추고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립각을 세운 바 있었다.<sup>39)</sup> 다른 하나는 경상도 예안의 사족들에 대한 처벌을 두고 나타났다. 도산서원 원장이던 이유도가 감사를 모욕한 죄목으로 경상감사 원탁의 조사를 받던 중 장살된 바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통문으로 만들어 경상도 사족들에게 돌린 예안 유생 이홍중이 감사를 비방한 죄목으로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sup>40)</sup> 이에 대해 정경세는 예안의 사족들이 다소 무리하게 행동한 잘못은 있지만 이를 경상감사를 구축하려 하였다는 죄목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sup>41)</sup> 이를 이귀는 영남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대간도 감히 지적하여

37) 『인조실록』6, 2년 5월 17일 경오.

38) 吳允謙은 당시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걱정하였으며, 최명길은 “이 일은 이귀가 정경세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조정의 본의가 아닙니다. 儒臣은 임금의 덕을 보도하는 것이 그 직임이니, 정경세가 말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지위가 불안하게 되었으니 매우 한탄스럽습니다.”라고 하여 더욱 분명하게 이귀의 무리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인조실록』6, 2년 5월 13일 병인)

39) 『인조실록』13, 4년 윤6월 9일 기유.

40) 『인조실록』13, 4년 윤6월 6일 병오.

41) 『인조실록』13, 4년 윤6월 10일 경술.

논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치문제화하려 하였으며, 이어 대간이 입 다물고 말하지 않은 것은 후환을 두려워해서라고 까지 말하면서 그 배후로 대사헌 정경세를 지목하여 공격하였다.<sup>42)</sup> 이귀는 남인을 견제하고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맞서 정경세는 남인을 변호하는 대응을 한 것이었다. 영남 남인 출신의 관료로서 집권 서인의 부당한 압박과 횡포에 맞서서 남인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자임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그는 관료로서 군주의 계육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특히 학문적 식견이 높았기 때문에 경연에 참석하여 인조를 계발한 부분이 많았다. 정경세가 경연에서 진강할 때마다 백료들이 얼굴빛을 바꿀 정도로 탁월하였다고 한다. 이는 경연에 참여한 동료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함께 경연에 참여한 바 있던 사간 權濤는 “정학사는 참으로 시강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가는 사람이다.”라고 감탄하였다고 한다.<sup>43)</sup> 이준은 “우복은 경연석상에서 임금에게 고하고 일을 논함에 있어서 경전을 인용하고 의리를 넘나들었는데, 상세하면서도 번거롭지 않고 간술하면서도 급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이 나오는 것이 비록 무궁하였으나 말투가 아주 애연하고 간절하였으므로 인정에 곡진하고 天聽을 감발시킬 수가 있었다.”고 전하였다.<sup>44)</sup>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인조가 “자신이 큰 허물이 없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정경세의 도움이 실로 컸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45)</sup> 그리하여 훗날 산림들의 후손을 특별히 서용하라는 명에 이어 특별히 정경세를 논급하면서 그의 후손도 함께 서용하라는 명을 따로 내리기도 하였던 것

42) 『인조실록』13, 4년 윤6월 9일 기유.

43) 『우복집별집』부록, 언행록 : 『국역 우복집』5, 138쪽, 이원규의 기록.

44) 『우복집별집』부록, 언행록 : 『국역 우복집』5, 139-140쪽, 이원규의 기록.

45) 『우복집별집』부록, 언행록 : 『국역 우복집』5, 139쪽.

이다. 46) 명예의 반열이 산림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정경세는 그러한 실력과 정성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곡진하게 아  
되어 성취한 것이 있었다. 사신은 “정경세는 박학하고 문장에 능하기로  
儒臣 중에 첫째로 꼽힌다. 차자의 앞뒤 내용이 조용히 開導하는 것으로서  
간곡하게 憂愛하는 정성을 바쳤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하여 평한 바 있  
다. 47) 국정에 대한 그의 생각은 경연에서의 진언이나 상소에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인조 원년에 올린 弘文館八條筭를 들 수 있다. 홍문관 부제학이였  
던 정경세는 젊은 관료들과 함께 새로운 군주인 인조가 지향해야할 국정  
의 기본 방향으로서의 덕목을 8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었다. 立大志,  
懋聖學, 重宗統, 盡孝敬, 納諫諍, 公視聽, 嚴宮禁, 鎮人心이 그것이었다. 48)  
한결같이 처음 정사를 펴는 군주가 살펴야하는 덕목이었다고 하겠다.

이어 인조 2년에는 구언하는 전지에 응한 차자에서 시무책으로 백성  
들에게 세금 내기를 독촉하되 소오스럽게는 하지 않고, 세금내기를 독촉  
하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어루만져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옛 사람의 말  
을 인용하면서 백성을 어루만져주는 정치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 49) 이는  
백성을 근본에 두고 백성을 위하는 정신에 근본을 두고 있다. 광해군 즉  
위년에 올린 무신소도 그 근본 정신은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군주는 사심을 버려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저에 흐르고 있었다. 이는 자연히 내수사의 혁파 내지 축소 주장으로

46) 『인조실록』49, 26년 12월 19일 기유. 손자인 鄭道應이 천거로 대군사부에 임명  
된 것도 그 영향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인조실록』50, 27년 4월 11일 기해)

47) 『인조실록』13, 4년 윤6월 7일 정미.

48) 『인조실록』3, 1년 9월 11일 무술. 『우복집』4, 弘文館八條筭.

49) 『우복집별집』5, 연보, 인조 2년 1월 병인 ; 『국역 우복집』4, 403-408쪽, 구언하  
는 전지에 응한 차자.

이어졌다. 내수사는 대표적인 왕실 소유의 재산을 취급하던 기구였다. 반정초기에는 이 내수사를 혁파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모양인데, 소문에 그쳐서 실망이 컸었던 사안이었다. 인조 1년 경연에 참가한 부제학 정경세는 이 내수사 문제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경연에 입시한 기회를 이용하여 내수사 복호 만이라도 혁파하기를 주청한 것이었다.<sup>50)</sup> 그 후 정묘호란을 겨우 극복한 뒤에 국정을 추스르는 방안을 개진하면서도 내수사의 혁파를 주장한 바 있었다. 그는 포병 1만병 양성, 조총의 수입, 무과에 조총 과목 신설 등과 함께 제일 중요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내수사를 혁파하고 그 수입을 호조로 돌릴 결단을 촉구한 바 있었다.<sup>51)</sup> 인조 8년 경연석상에서도 정경세는 장유와 함께 내수사의 폐해를 말하면서 혁파만이 그 폐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로 극진히 아뢰는 바 있었다. 그러나 인조는 내수사는 '털끝만큼 백성의 힘을 빌지 않으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적지 않으며 또한 군주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sup>52)</sup> 비록 내수사와 관련한 것은 국왕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만큼 군주에게 하기 어려운 건의를 앞 뒤 재지 않고 수차에 걸쳐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궁방과 관련하여서도 그 폐단을 시정할 것을 수차 주장한 바 있었다. 인조 1년 정경세는 여러 궁가에 복호의 혜택을 주면 백성들이 반드시 그곳에 의탁을 하게 되어 폐단이 발생하니 이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주장

50) 『인조실록』3, 1년 윤10월 15일 신축.

51) 『인조실록』16, 5년 5월 1일 병인 ; 『우복집별집』6, 연보, 인조 5년 6월 병오 11일.

52) 『인조실록』23, 8년 10월 20일 을축.

하였다. 그리하여 인조로부터 비록 호역의 면제를 금하는 조처까지는 얻어내지는 못하였지만 궁가 전결의 복호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얻어내기도 하였다.<sup>53)</sup> 인조 6년에도 내탕고와 蘆田 및 海澤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등을 혁파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sup>54)</sup>

군주가 사심을 버리고 오직 백성을 위해 진력하는 정치 그것이 정경세가 추구한 정치였던 것이다. 그를 위해 그는 새로운 군주가 즉위하였을 때 그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경연석상이나 상소 등을 통해 계속 군주를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는 것이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말하면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평을 받았다. 내수사나 궁방과 같은 국왕과 관련되어 있어 말하기 어려운 것도 수차에 걸쳐 개진하는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그 자신 시대적 환경인 당파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으나, 학자적 관료로서 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적인 전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2. 전례에 대한 예론의 제시

인조는 정상적인 왕위 승계가 아니라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선조의 제 5자 定遠君의 아들인 인조는 종통상으로는 손자로서 조부인 선조의 뒤를 잇는 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통성 문제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상당수 반정 주체 세력 역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정통성 확립의 완결은 인조의 生父로서 반정 전에 죽은 생부 정원군

53) 『인조실록』3권, 1년 11월 11일 정묘.

54) 『우복집별집』7, 연보, 인조 6년 8월 10일 무술 : 『국역 우복집』5, 61쪽.

의 추승이었다.<sup>55)</sup> 정원군을 왕으로 추승하여 선조의 적통을 정원군(후일 원종)을 거쳐 인조에게 이어지게 함으로써 정통성을 한층 확고하게 굳히려고 한 것이다. 원종의 추승은 10여년 동안 수차례 걸친 전례 논쟁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수반되었다.

반정직후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은 당연히 定遠大院君으로 추존되었다. 그런데 이 때 인조의 정원대원군에 대한 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례 문제로 대두하였다. 즉 정원대원군의 제사를 지낼 때 인조가 제문의 頭辭에서 생부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가 논쟁의 시작이었다. 아울러 인조가 상복을 입어야 한다면 의리상 어떤 복제가 옳으냐는 것과 어떤 형태의 묘향이 합당한가의 문제가 연이어져 있었다. 이 문제는 이후 약 10년 간에 걸쳐 사안별로 제기되었다.

이 때 조신 중에서 전례에 대해 발언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자신의 논리를 세워 의견을 표출한 자는 정경세를 위시하여 이정구, 장유, 최명길, 조익 등이었고, 학자로서는 산림인 김장생, 박지계 등이었다. 나머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대개 위의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 중의 하나와 비슷하였다. 여러 사람들의 논점을 대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56)</sup>

55) 원종 추승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들이 참고가 된다.

이영춘, 「잡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승」, 『청계사학』7, 1990.

우인수, 「조선 인조대 정국의 동향과 산림의 역할」, 『대구사학』41, 1991.

이현진, 「인조대 원종추승론의 추이와 성격」, 『북악사론』7, 2000.

장세호, 「원종의 추승문제」, 『한국사상과 문화』50, 2009.

56) 인조의 정원대원군에 대한 칭호와 복제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후일 朴世采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필자가 약간 가감하여 제시하였다. 『南溪集』64, 章陵稱號尊崇考證.

〈표 1〉 인조의 정원대원군에 대한 전례

관료 구분	鄭經世 李廷龜	趙翼	金長生	張維	崔鳴吉	朴知誠
祭文 稱號	考	考	伯叔父	考	考	考
服喪	不杖期	不杖期	不杖期	杖期	三年	三年
廟享	綾原君主祀	綾原君主祀	綾原君主祀	別廟	別廟	禰廟
論據	稱:禰位闕 服·廟:爲 人後	稱·服· 廟:爲人後	稱·服· 廟:爲人後, 重位次	稱:爲祖後 服·廟:爲 宗統	稱·服:爲 祖後 廟:爲宗統	稱·服· 廟:爲祖後, 重血統

여기서는 정경세에 초점을 맞추어 전례 문제에 임한 그의 대응 인식과 자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제학 鄭經世는 선조와 인조간에 종통상으로는 '父子之道'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인조가 선조의 아들이라 한다면 정원군과 인조는 형제간이 되어야 하는 무리가 있다는 점과 또한 稱考할 데가 없게 되어 踰倫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원군을 考라 칭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융통성있는 예론을 폈다.<sup>57)</sup> 이는 예조판서 이정구와도 일치된 견해였다.

이 때 산림 金長生은 帝王家의 承統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서, 인조는 선조에게 '父子之道'가 있으므로 정원대원군에 대해서는 伯叔父라 칭해야 한다고 하여 정원대원군을 종통에서 배제하는 철저한 예론을 내세웠다.<sup>58)</sup> 그리고 산림 朴知誠는 정원대원군을 종통에 적극 포함시키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는 '傍親爲人後者'와 '孫爲祖後者'의 경우를 명백히 구별하여 인식하였는데, 인조의 선조에 대한 경우는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계승한 '孫爲祖後者'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원대원군에 대해서는 考의 칭호를 쓸 수 있고, 상복도 斬衰三年服을 입을 의리가 있다

57) 『인조실록』2, 원년 5월 7일 병신.

58) 『인조실록』2, 원년 5월 3일 임진.

는 주장을 폈다.<sup>59)</sup>

결국 호칭 문제는 논리야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정경세를 포함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 考라 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중요한 예론의 결정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조 2년 박지계의 문인 경릉참봉 이의길이 정원대원군의 추송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논의를 촉발하였다.<sup>60)</sup> 인조도 김장생과 박지계의 논리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물으면서 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다. 이 때 부제학 정경세는 김장생의 논리는 대개는 正論이나 정곡을 얻지는 못한 반면에 박지계의 논리는 극히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혹평하면서<sup>61)</sup> 정원대원군의 추송에 대한 인조의 관심을 초기에 봉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인조 4년 인조의 생모 啓運宮 具氏가 사망함으로써 이 문제는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인조가 생모의 상에 입어야 할 상복의 종류가 논란의 핵심이었다.<sup>62)</sup> 그런데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부 정원대원군을 어떻게 처우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대개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복을 입는 것이 상례이지만, 인조의 경우에는 선조의 뒤를 이어 대통을 이었기 때문에 사가의 친부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降服하여 기년복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59) 『潛治集』1, 응지소, 갑자(인조 2).

60) 『인조실록』7, 2년 9월 13일 갑자.

61) 『인조실록』7, 2년 10월 23일 갑진. 후에 예조에서는 그 하문에 대해 답하기를 “金長生之論 雖有曲折之差殊 大意則與臣等同 朴知誠之論則錯謬甚矣”라 하여 정경세의 답변이 예조 관원들의 의견과도 일치함을 확실히 해 두었다.

62) 인조의 계운궁에 대한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라.

서인한, 「인조초 복제 논의에 대한 소고」, 『복악사론』1, 1989.

이현진, 「17세기 전반 계운궁 복제론」, 『한국사론』49, 2003.

계운궁의 병세가 위독할 때 삼의정인 이원익·윤방·신흠과 예조판서 김상용이 모여 논의한 결과 역시 삼년복에서 강복하여 不杖期로 정하였고, 조정의 의론도 대개 옳게 여겼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공신인 부제학 최명길과 연평부원군 이귀가 대통을 이었다고 해서 그 상복을 낮출 수 없다고 하면서 삼년복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나아가 삼년복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전하를 아버지가 없는 분으로 인도하려는 사람이다.'라거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들'로 몰아부쳤다.<sup>63)</sup> 인조는 당연히 친모를 높이려는 인정에 끌려 후한 상복을 입는 쪽에 좀 더 솔깃해 하였다.

예학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던 대사헌 정경세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경세는

아버이를 친히 하는 것은 은혜이고 조상을 높이는 것은 의리인 것으로 의리가 있는 것에는 은혜를 굽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예법을 만든 뜻은 지극히 정미한 것으로서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소생 부모에게 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sup>64)</sup>

라고 전제한 후 인조의 경우는 선조의 대통을 이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에 압존되어 私親을 위해 정리를 펼 수 없는 것이 천지의 常經이요 고금의 通誼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대신들의 주장과 바와 같이 기년복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곡진하게 펼쳤다.<sup>65)</sup>

그러나 인조는 자신이 이미 정원대원군을 考라 칭하고 스스로 구라 칭하고 있는 이상 삼년복을 입는 의리가 있으니, 생모의 상에 삼년복을

63) 『인조실록』10, 3년 12월 12일 병술.

64) 『인조실록』11, 4년 1월 15일 기미.

65) 『인조실록』11, 4년 1월 15일 기미.

입어야겠다고 고집하였다.<sup>66)</sup> 이러한 인조의 뜻에 적극 영합한 인물은 공신인 이귀와 최명길 등이었는데, 그들의 논리적 근거는 박지계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sup>67)</sup>

이렇게 不杖期論과 三年服論이 맞선 가운데 정경세를 비롯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삼년복제는 채택되지 않았다. 삼년복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경세도 큰 힘을 보탠 것이다. 인조는 삼년복을 포기하는 대신 기년은 기년이되 부장기가 아닌 장기로 하기를 고집하여 집행하였다.<sup>68)</sup> 이는 인조가 상주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상주도 결국은 동생인 능원군이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69)</sup> 역시 정경세를 비롯한 여러 예론가들의 논의가 관철된 것이었다.

그 후에도 이귀와 최명길이 계운궁 복제의 잘못을 간헐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고, 양릉군 허적이 추송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바 있었으나 별다른 파문을 던지지 못하였다.<sup>70)</sup> 그러다가 원종 추송 문제는 인조 8년 경에 이귀의 차자로 인해 조정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었다.<sup>71)</sup> 인조 7년(1629년) 산해관 방면을 지키고 있던 명장 袁崇煥에게 齎咨使의 임무를 띠고 해로를 통해 파견되었던 崔有海가 잘못하여 淸州에 표류한 바 있었다.<sup>72)</sup> 그는 마침 이곳에서 명군의 군량을 감독하는 임무를 띠고 와 있던

66) 『인조실록』11, 4년 1월 14·15일 무오·기미.

67) 『潛治集』1, 擬上疏, 병인. 이미 인조 원년부터 정원대원군을 종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예론을 펼친 박지계는 이 때도 같은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상소를 써두었다. 이 상소는 비록 조정에 올리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은 중형 박지양 등에 의해 요로에 충분히 배포되었다고 한다. 이영춘, 「잠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송」, 『청계사학』7, 1990, 253쪽.

68) 『인조실록』11, 4년 1월 15일 기미, 19일 계해.

69) 『인조실록』11, 4년 1월 23일 정묘.

70) 『인조실록』18, 6년 3월 8일 기사 ; 『앞의 책』20, 7년 6월 19일 임신.

71) 『인조실록』23, 8년 10월 28일 계유.

72) 『인조실록』21, 7년 9월 6일 정해 ; 『앞의 책』23, 8년 12월 4일 무신.

명의 戶部郎中 宋獻을 만났다.<sup>73)</sup>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던 중 화제가 원종의 추숭에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송헌은 원종의 추숭이 당연하다는 논지의 예론을 글로 지어 준 바 있었다.<sup>74)</sup>

이를 최유해의 친구 홍진도를 통해 입수한 이귀는 송헌과 박지계의 주장이 일치하니 가히 천하의 공의라고 하면서 추숭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sup>75)</sup> 이에 인조도 원종추숭을 통해 왕통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면서 生父母에 대한 인정상의 의리를 다하고자 하였다. 인조는 명에 주청하여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까지 이의 관철에 집착하였다.<sup>76)</sup>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추숭에 반대하다가 이미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 상주에 내려가 있던 정경세도 마지막 추숭 반대 상소를 올렸다. 인조 9년 4월에 상소를 올려 추숭하지 말기를 청하면서 추숭은 인조가 은혜로써 의리를 가리는 행위에 가깝다며 극진히 아뢰었으나 인조는 더 이상 비답조차 내리지 않았다.<sup>77)</sup> 이 상소를 읽어본 영의정 오윤겸은 ‘유신이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감탄하면서 칭찬하였다고 한다.<sup>78)</sup> 하지만 추숭을 저지하기에는 정경세로서도 이미 방도가 없었다. 무엇보다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sup>79)</sup>

73) 호부낭중 송헌이 이듬해인 1630년에도 군량 감독의 임무를 띠고 여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최유해와 등주에서 조우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明懷宗實錄』 3, 庚午年(희종 3년, 1630년).

74) 『연려실기술』22, 「元宗仁獻王后追崇」, 인조 8년 11월조.

75) 『인조실록』23, 8년 12월 8일 임자.

76) 『인조실록』24, 9년 4월 20일 계해.

77) 『국역 우복집별집』7, 부록, 연보, 인조 9년 4월조.

78) 위와 같음.

79) 정경세는 인조 9년 6월 이후 병세가 점점 깊어져 정신이 혼모함이 심해져서 자제의 이름자를 모두 잊어버릴 정도에 이르렀다.(연보 해당조) 이런 상태로 지속되다가 11년 1월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였고 약간의 차도가 있다가 6월

이제 인조를 비롯한 추숭론자들은 추숭을 향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였다. 인조는 추숭에 반대하는 유생과 관료들을 처벌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sup>80)</sup> 그리고 이귀를 이조판서에 임명하여 인사권을 맡기면서 힘을 실어주었다.<sup>81)</sup> 추숭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관직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드디어 인조 10년 최명길의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추숭 작업을 마무리하였다.<sup>82)</sup>

전례와 관련하여 정경세의 역할과 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정원대원군에 대한 제문의 두사 칭호를 고라고 제시하여 실현시켰다. 계운궁 복제 논란에서 삼년복을 저지하였다. 다만 부장기를 주장하였으나 장기로 집행된 아쉬움은 있다. 그리고 계운궁의 주상을 동생인 능원군이 맡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중신으로서의 조정의 의견을 모우는 중심 관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부제학, 대사헌, 이조판서 등의 직임에 있을 때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종 추숭 막바지에는 병이 깊어 조정의 일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경세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

에 졸하였다.(연보 해당조)

80) 인조 9년 9월 추숭론의 이론적 제공자로서 비난의 표적이 된 박지계가 유생들에 의해 儒籍에서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주동자인 許穆이 이귀의 청에 의해 停擧 처분을 당하였다.(『인조실록』25, 9년 9월 18·27일 기축·무술) 박지계를 蓼蟲이라 하며 매도한 바 있던 趙綱은 知禮縣監으로 좌천되었으며,(『인조실록』25, 9년 9월 4일 을해) 그 외 이귀를 비난하였던 執義 金世濂, 掌令 李垞·朴安悌 등도 외직으로 黜補되었다.(『인조실록』25, 9년 윤11월 23일 임술)

81) 『인조실록』25, 9년 11월 25일 갑오.

82) 『인조실록』26, 10년 2월 24일 임진에 追崇都監이 설치되었고, 李貴와 崔鳴吉이 提調에 임명되었다.

## IV. 외침에 대한 대응

### 1. 임진왜란시의 활동

일평생 살면서 한번 겪어도 족할 외침을 두 차례나 겪은 세대는 참으로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경세의 세대가 그러하였으니, 30대에 왜란을 겪었고, 60대에 호란을 겪었던 것이다. 30세 때 정경세는 임난을 맞이하였다. 이미 6년 전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출사한 상태였으나, 정여립모역사건에 연루된 이진길을 사관으로 천거한 것으로 인해 조정을 떠나 고향인 상주에 내려와 있던 때였다.

창졸간에 당한 일이기도 하고 상주가 왜군의 진격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노모를 위시한 식구들과 함께 일단 주변 산으로 피난하였다. 정신을 차린 후 향중의 父老들과 의논하여 村兵 약간을 모아 왜군과 교전하여 작은 전공을 올리기도 하였다. 별다른 군사적인 지식도 없이 소규모의 부대로 왜의 정규군과 맞붙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이에 군무에 약간의 조예가 있던 이를 초빙하여 의병의 지휘를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왜군에게 포위됨으로써 패하여 흩어지게 되었다. 이 때 정경세의 노모와 동생은 적의 칼날에 희생되어 사망하였고, 이를 구하려던 정경세도 적의 독화살에 어깨를 관통당하여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거의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었다.<sup>83)</sup> 그 뒤 창의장 李逢의 참모관이 되어 원근에 격문을 보내어 군사를 모우고 군량을 모우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정경세는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였다. 그 와중에 노모와 동생을 잃는 뼈아픈 아픔을 겪었고, 자신도 독화살을 맞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83) 『선조실록』68, 28년 10월 1일 경자.

것이다. 약간의 전공을 세웠지만 주변에 널리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공을 사양한 것은 염치를 존중하던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자연히 공이 조정에 전해져 서용의 명이 내렸으나, 노모의 삼년상 동안은 출사를 미루었다.

1594년(선조 27) 조정에 복귀한 그는 육조의 낭관과 삼사의 청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체찰사 류성룡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으니, 스승인 류성룡이 최고책임자로 임난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데에 맞추어 자신에게 주어진 관료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 또한 이즈음 왜적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모아 소위 복수군을 조직할 것을 청하여 선조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sup>84)</sup> 하지만 의분만으로 전투의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실제 가시적인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던 듯하다.<sup>85)</sup> 곧이어 1598년(선조 31)에는 경상도관찰사에 특별히 임명되어 긴 전란의 마지막을 마무리함에 있어 현장에서 일익을 담당하였다.

## 2. 정묘호란시 號召使 활동

인조 5년 정월 후금이 군대를 몰아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범하였다. 65세의 나이에 정묘호란을 맞이한 것이다. 조선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였다. 별다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습에 가까운 침입으로 인해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저지선이 연이어 뚫렸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가 차례로 무너진다면 일단 나라를 구할 지역으로 믿을 곳은 삼남밖에 없다고 조정은 인식하였다. 삼남지역의 의병과 군사에 의지하여 이를 버

84) 『선조실록』84, 30년 1월 6일 정유.

85) 『선조실록』95, 30년 12월 2일 무오.

팀목으로 활용하여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삼남지역의 민심을 하나로 모을 거물급 인물이 필요하였다. 이에 인조는 비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경세와 장현광을 경상도 호소사로 임명하였으며, 김장생에게는 호서와 호남을 모두 맡겨 兩湖 호소사로 삼았다.<sup>86)</sup> 신흠 같은 이는 정경세에게 전적으로 영남을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87)</sup> 이와 같이 정경세는 조정에서 영남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장현광과 김장생 같은 산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던 것이다.

정경세는 이미 3년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영남지역을 효유하는 구역으로 담당한 바 있었다. 당시 북방의 군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군사를 휘몰아 쳐내려올 때 비변사는 4명의 재신을 검찰사로 임명하여 경기와 삼남지역의 한 구역씩을 담당하게 하여 백성들의 동요를 막도록 한 바 있었다. 이 때 정경세가 영남을 담당하였고, 沈器遠이 호남, 金尙容이 호서, 李顯英이 경기도를 각각 담당한 바 있었다.<sup>88)</sup>

이 시기 정경세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견디기 어려운 슬픔에 잠긴 시점이었다. 몇 년 전에 요절한 맏아들에 이어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의 장례를 위해 겨우 말미를 얻어 상주로 내려오고 있던 중이었다. 청주에 도착하였을 때 후금의 변경 침범 소식을 듣고 바로 말머리를 돌려 서울로 향하던 중 수원에 이르러 호소사에 임명된 소식을 접하였다.<sup>89)</sup> 이틀 뒤 대궐에 입궐하여 인조를 배알하여 그동안의 상황 판단을 하고 몇가지

86) 『인조실록』15, 5년 1월 19일 정해.

87) 위와 같음.

88) 『인조실록』4, 2년 2월 8일 임진.

89) 『우복집별집』6, 부록, 연보, 인조 5년 1월 22일.

긴급한 조처를 건의하고 논의하였다.

우선 정경세는 포수를 전방으로 빨리 보내어 우선 적의 예봉을 막음으로써 자강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금과 동궁이 각각 강화도와 남도지역으로 나누어 분담하여 백성들을 독려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리고는 경상도 호소사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처들을 서둘러 허가 받았다. 즉 이미 차정된 종사관 이윤우 외에 강대진과 박한을 종사관으로 더 차출하겠다고 하여 허락을 얻었으며, 산척이나 포수들의 모집을 위해 우림위의 공명첩 수백장과 또한 서얼허통첩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또한 경상도 문관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호종하는 데 불과할 뿐이니, 이들로 하여금 경상도에 머물며 곡식이나 의병을 모으게 하겠다는 점도 아뢰어 허가를 받았다.<sup>90)</sup>

다음날 세자가 분조하여 남으로 내려갔고, 이어 인조가 강화도를 향해 떠난 것과 거의 동시에 정경세는 경상도를 향해 출발하였다.<sup>91)</sup> 이 때 이미 경상도지역에서는 장현광과 정경세가 호소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있었고, 이어 바로 각 지역별로 의병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92)</sup>

경상도 지역에 내려온 정경세는 도내에 격문을 보내어 통유하는 한편 직접 각 지역을 돌면서 사람과 곡식을 모우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

90) 『우복집별집』3, 경연일기, 인조 5년 1월 24일 ; 『국역 우복집』4, 222-226쪽.

91) 『우복집별집』6, 부록, 연보, 인조 5년 1월 24일 ; 『국역 우복집』5, 36쪽.

92) 『계암일록(상)』4,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97) 인조 5년 1월 25·26일, 671쪽. 이 때 이미 안동과 예안의 의병장 선임 논의가 시작되어 대개 인선의 윤곽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8일에는 장현광에 의해 각 지역의 의병장들이 선임되었는데, 안동 김시추, 예안 이영도, 榮川 권주, 예천 장여한, 풍기 곽진, 봉화 권극명, 진보 김위, 청송 조준도, 영해 이시명, 용궁 정윤목 등이었다. (『계암일록(상)』4, 인조 5년 1월 28일, p.672) 장현광의 호소사 진용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함께 참고하라. 우인수, 「조선 인조대 정국의 동향과 산림의 역할」, 『대구사학』41, 1991, 112-114쪽.

다. 날짜별로 활동한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았다. 2월 3일 상주에 도착하여 도내에 통유하고 관찰사 김시양과 시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4일에는 선산에 도착하여 호소사 장현광과 만나 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sup>93)</sup> 정경세가 호소사의 上使를 맡았다고 한다.<sup>94)</sup> 이 때 장현광이 의병이 되기 위해 나온 선비들을 모두 거느리고서 전장터로 서둘러 나아가려고 하였는데, 마침 도착한 정경세가 이르기를, “선비들을 내몰아쳐 화살과 돌이 날리는 전쟁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일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입니다. 명분만 있고 실체는 없으니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자 의곡을 내어 군량에 보태도록 하였다고 한다.<sup>95)</sup> 그리고 경상도호소사의 막하에서 군량을 총책임지는 管糧官에는 이준을 차임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관량유사를 선임케 하였다.<sup>96)</sup>

2월 8일에는 옥성에 도착하여 조정에 서장을 올렸으며, 14일에는 함창, 16일에는 용궁, 17일에는 예천, 20일에는 안동을 각각 순행하였다.<sup>97)</sup> 그리고 2월 27일에 경상도 지역의 18읍 의병장과 참모들을 함창에 모여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였는데, 3월 10일에 충주에 의병 전체가 집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sup>98)</sup> 이렇게 한달여의 기간동안 정경세는 격문을 도내에 돌리고 또 친히 열읍을 순행하면서 장현광과 협의하여 군사를 사열하고 군량을 조달해 세 부대로 나누어 잇달아 전진해 한강을 방어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 후 3월 2일에는 용궁을 거쳐 다시 상주로 돌아왔으며, 8일에 후금군

93) 『우복집별집』6, 부록, 연보, 인조 5년 2월 3일, 4일.

94) 『계암일록(상)』4, 인조 5년 2월 6일, 674쪽.

95) 『우복집별집』8, 부록, 언행록 : 『국역우복집』5, 143쪽, 강교년의 기록.

96) 『계암일록(상)』4, 인조 5년 2월 9일, 675쪽.

97) 『우복집별집』6, 부록, 연보, 인조 5년 2월 해당조 : 『국역우복집』5, 36-37쪽.

98) 『계암일록(하)』5, 인조 5년 2월 23일, p.2. 3월 1일, 3쪽.

이 물리가 군사를 파한다는 국왕의 유지를 받았다.<sup>99)</sup> 조정에서 화의를 맺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군사들로 하여금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였다.<sup>100)</sup>

한편 그동안에 의병을 모우고 의곡을 모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의병장들에 대한 추천과 보고도 잊지 않았다.

선산의 의병장 김수는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으며 포치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었습니다. 고성 의병장 노극복은 여염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눈물로써 개유하매 성의에 감동되어 사람들이 모두들 기꺼이 응모하였으므로 조금만 고을에서 곡식을 모집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주 의병장 이천봉과 고령 의병장 이현룡, 의성 의병장 권수경, 인동 의병장 장경우 등도 모두 소모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였으며, 사람됨이 모두 백집사의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전조로 하여금 이들을 뽑아서 의망하게 해 뒷날에 격려하고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게 할 경우, 나라에서 인재를 배양하고 장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도움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sup>101)</sup>

선산의 김수, 고성의 노극복, 성주의 이천봉, 고령의 이현룡, 의성의 권수경, 인동의 장경우 등을 적극 추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외 군량을 조금씩 낸 사람도 따로 調度使 李垞으로 하여금 올리게 하여 규례에 따라 상을 받도록 하였다.<sup>102)</sup>

경상도에서의 일을 위와 같이 마무리한 후 정경세는 조정에 복귀하였다. 4월 7일에는 강화도에 도착하여 복명하였고, 12일에 어가를 호종하여 서울로 돌아왔던 것이다.<sup>103)</sup> 이렇게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영남

99) 『우북집별집』6, 부록, 연보, 인조 5년 2월 해당조 ; 『국역우북집』5, 36-37쪽.

100) 『우북집별집』6, 부록, 연보, 인조 5년 3월 8일.

101) 『우북집별집』1, 복명하는 게 정묘년(1627, 인조 5)에 호소사로 있을 때 올린 것이다. 『국역우북집』4, 72-73쪽.

102) 『인조실록』16, 5년 5월 1일 병인.

103) 『우북집별집』6, 부록, 연보, 인조 5년 4월 7일, 12일.

이라는 한 후방 지역을 맡아 잘 대처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이와 같은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은 그가 평소에 지닌 위상과 신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구나 양호지역을 담당한 김장생, 영남을 분담하여 맡은 장현광과 같은 산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위상을 지닌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맺음말

17세기 영남 남인의 대표적 관료이자 학자였던 정경세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현실에 대한 대응을 살폈다. 퇴계 이황의 학맥을 류성룡을 통해 이은 적전으로서 영남 남인 사회를 한 시기 풍미하였다. 남인으로서의 자세를 확고히 하였으나,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아서 서인 명문가의 자손인 송준길을 사위로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는 관료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직생활에 임하였는데, 당쟁기를 살아간 당인이었기 때문에 당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의 정치적 행로와 사환도 당쟁의 추이에 따라 부침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류성룡을 비롯한 남인이 북인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함께 실각하였다. 오랜 정체와 침체의 시간을 거쳐 인조대에 그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조판서에 양관대제학을 겸하는 지위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는 뛰어난 학문적 실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군주를 계육하는 데 정성을 다한 관료였다. 남이 하기 어려운 말을 하여 삭탈 관작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도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부분이다. 수차에 걸쳐 시무책을 아뢰 바 있었으며, 궁중의 사사로운 재산 증식에 제동을 거는 발언도 수차례 올린 바 있었다. 예학에도 일가견을 가져 당시 원종

추승을 둘러싸고 10년간 수차에 걸쳐 전개된 일련의 전례 논쟁에서 올바른 예의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편 그는 그의 생애에 큰 국난을 두 차례나 겪었다. 30세에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는 의병을 일으켜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면서 치열하게 대응한 바 있었다. 그 후에는 조정에 복귀하여 임난의 극복에 힘을 보태었으며, 임난의 막바지에는 경상도관찰사로서 마무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65세의 나이에 맞이한 정묘호란 때는 영남호소사에 임명되어 군량과 의병을 모우는 책임자로 활약한 바 있었다.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조정이 믿고 영남 한 지역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위상과 신망을 가진 존재였음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정경세는 이황의 적통을 류성룡을 통해 이어받은 학자적 관료로서 영남 남인의 지도자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높은 학문적 자질을 바탕으로 군주의 계육에 힘쓴 관료였으며, 예학에 밝아 국가적 전례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한 예학자였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서는 자신의 한 몸을 던진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 이로써 그는 영남을 대표하는 위상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영남과 남인에 국한되지 않는 명성과 신망을 얻은 존재였다.

### 【참고문헌】

-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연려실기술』, 『대동야승』, 『당의통략』, 『패림』, 『우복집』, 『국역우복집』, 『계암일록』, 『수암집』, 『동춘당집』, 『입재집』, 『계당집』, 『잠야집』, 『남계집』
- 우복선생기념사업회, 『우복 정경세선생 연구』, 태학사, 1996.
- 우인수, 『조선후기 산림세력연구』, 일조각, 1999.
- 고영진,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8, 1992, 85-128쪽.

-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과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37, 2006, 141-179쪽.
- 김승영, 「17세기 격물치지론에 대한 분석」, 『동서철학연구』36, 2005, 315-338쪽.
- 김학수, 「자료소개 : 정경세의 『우복선생 諡狀』」, 『고문서연구』20, 2002, 255-292쪽.
-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호중,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학통」, 『역사교육논집』31, 2003, 135-164쪽.
- 서인한, 「인조초 복제논의에 대한 소고」, 『북악사론』1, 1989, 95-137쪽.
-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 『퇴계학과 한국문화』45, 2009, 311-371쪽.
- 우인수, 「조선 인조대 정국의 동향과 산림의 역할」, 『대구사학』41, 1991, 112-114쪽.
-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25, 2003, 122쪽.
- 우인수, 「동춘당 송준길의 영남인과의 접촉과 그 추이」, 『충청학연구』6, 2005, 281-295쪽.
- 우인수,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퇴계학과 한국문화』44, 2009, 13쪽.
- 우인수,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 기능」, 『대구사학』104, 2011.
- 유권중, 「우복 정경세의 예학 연구」, 『동양철학』6, 1995, 185-220쪽.
- 유권중, 「우복 정경세의 예학사상」, 『안병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아세아문화사, 1998, 377-404쪽.
- 이영춘, 「잡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승」, 『청계사학』7, 1990, 253쪽.
- 이현진, 「인조대 원종추승론의 추이와 성격」, 『북악사론』7, 2000, 47-108쪽.
- 이현진, 「17세기 전반 계운궁 복제론」, 『한국사론』49, 2003, 87-126쪽.
- 장세호, 「원종의 추승문제」, 『한국사상과 문화』50, 2009, 399-423쪽.
- 최재목, 「우복 정경세와 상주지역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28, 2000, 149-178쪽.
- 최정목, 「우복 정경세 성리설의 기본입장과 율곡학 비판」, 『율곡사상연구』14, 2007, 97-113쪽.
- 한기문,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 설치의 배경과 의의」, 『상주문화연구』10, 2000, 9-27쪽.

Abstract
----------

## Jeong Kyung-se's Political and Social Prestige during the Joseon Dynasty

Woo, In-Soo

Jeong Kyung-se was an excellent scholar and official in *Youngnam* district during the first half of 17th century. He was taught by Ryu Seong-ryong(柳成龍) who were Lee Hwang's best pupil. He was the leading pupil among Lee Hwang's school. Especially, he entered upon a political career as a member of deputations representing *Youngnam*(嶺南) *Nam-in*(Southern faction) during the King Injo's period and made the most of one's ability.

During his tenure of office, he fulfilled his obligation with self-esteem and a sense of mission about his work. But he could not keep clear of engaging in party strife. Therefore he had ups and downs in his political path and public office by the party strife.

He was disgraced with *Nam-in*(Southern faction) because of political attack of *Buk-in*(Northern faction)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e had his best days again in the King Injo's time through a long period of an inactive political life. He helped and advised Kings using his knowledge and a noble character with all his hearts. During the process, he had been stripped from a government office because he advised King Kwanghaegun what somebody else hardly dared to advise to the king. For instance, he strongly advised bringing some new measures against current affairs and put the brakes on increasing King's own possessions. He also knew many things about the basic decencies of those civilized society and tried to apply the guidelines on upgrading the title of the King Wonjong, father of King Injo.

Meanwhile he suffered two big wars in his life. He raised an army in the cause of loyalty when Japanese invaded Joseon in 1592. After

that, he came back to Royal Court and provided support. He was appointed *Youngnam hososa*(嶺南 號召使) in the Chinese Invasion of Joseon in 1627. He undertook tasks gathering provisions and army. Through such efforts we can make sure that he was a man of high prestige and confidence who could take the responsibility of the defense of the *Youngnam* district.

Key Word

Jeong Kyung-se, Teogye Doctrinal Faction, *Youngnam* district, *Sangju*, *Nam-in*(Southern faction), *Youngnam Nam-in*(Southern faction)

- 논문투고일 : 2011.6.19 심사완료일 : 2011.8.1 게재결정일 : 2011.8.5